



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창조'되고 있다면, 그들은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지시하는 비생산적인 일에 불과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비교적 탄력적인 임금으로, 생산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은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누구나 그 직업을 구할 수 있다.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즉 온실 가스 배출 제한은, 전력 공구에 대한 금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위적인 희소성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우리는 더 궁핍해질 것이다.

플라스틱 규제로 인한 이득이 대부분 허황된 것이라면, 그 비용은 꽤 상당하다. 예를 들어 포크와 나이프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한하게 되면, 사람들은 금속으로 된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같은 포크와 나이프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만약 쇼핑객들이 같은 토트백을 계속 사용한다면 결국 그들은 박테리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우려 외에도, 보편적으로 비닐봉투가 매우 편리하다는 인식이 이미 팽배하며, 따라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줄임으로써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비닐봉투가 종이봉투를 제치고 선택 받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플라스틱의 단일 사용을 금지하자는 캐나다의 제안은 '본질을 저버린 상징주의'의 또 다른 승리다. 이 조치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경제에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플라스틱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질병 확산 증가, 그리고 소비자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instituteforenergyresearch.org/regulation/plastic-bans-are-symbolism-over-substance/>